

# 韓國과 日本의 伽藍配置計劃 比較 研究

金 奉 烈 / 삼정건축연구소

## A. 비교의 의미

비교문화의 방법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비교대상이 되는 문화의 성격을 좀 더 뚜렷이 하여 그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비교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외재적 방법이므로 단순화·도식화·2원론화 할 위험이 있지만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한편 유용한 방법이다.

비교의 기본전제가 객관성·공정성에 있음은 물론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 될 때는 더욱 유념해야 할 전제가 된다. 식민시대에는 일본의 우월성이 폭력적으로 강요 되었고 해방 이후엔 그 역역상이 만연하여 이러한 객관적 태도를 찾기 힘들었음이 사실이다. 객관성의 결여라는 오류는 양국 건축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의 미는 자연미요, 일본 건축미는 인공미다”라는 식의 개념적, 인상적 비평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우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 목적이겠지만 평가의 관점을 달리하면 오히려 우리 건축을 미개성·왜소성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또 우리 건축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엔 그다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상의 몇 문제점을 안고 한국과 일본 건축을 비교할 때 우선 비교의 목적과 내용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가람배치 계획을 비교하는 것은 어느 한편의 계획적 우월성을 강조함은 무의미한 작업으로 보

이며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 변천의 방향성 간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양국 건축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운동의 결과로서 그러한 내재적 관찰의 방법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그 양자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건축의 특성을 더욱 실체화함이 2차적 목적이다.

이 비교의 과정에서 비교 요소가 되는 것은 건축 외적 요소와 건축 내적 요소가 있는 바 전자는 시대상 또는 그로 인한 교리의 변천이 사찰 배치의 변천에 미친 영향 등이며, 이들의 연구를 위해선 광범위한 여타 현상의 분석과 심층적인 종교적 연구가 필요함으로 차후의 작업으로 미룬다.

비교의 요소로 삼는 건축 내적 요소란 배치 계획에 있어서 계획 의도의 우선도 문제·軸·動線·視線·영역화의 방법·개체의 기능·개체들의 조합·공간 개념 등이다.

## B. 가람배치의 원형 및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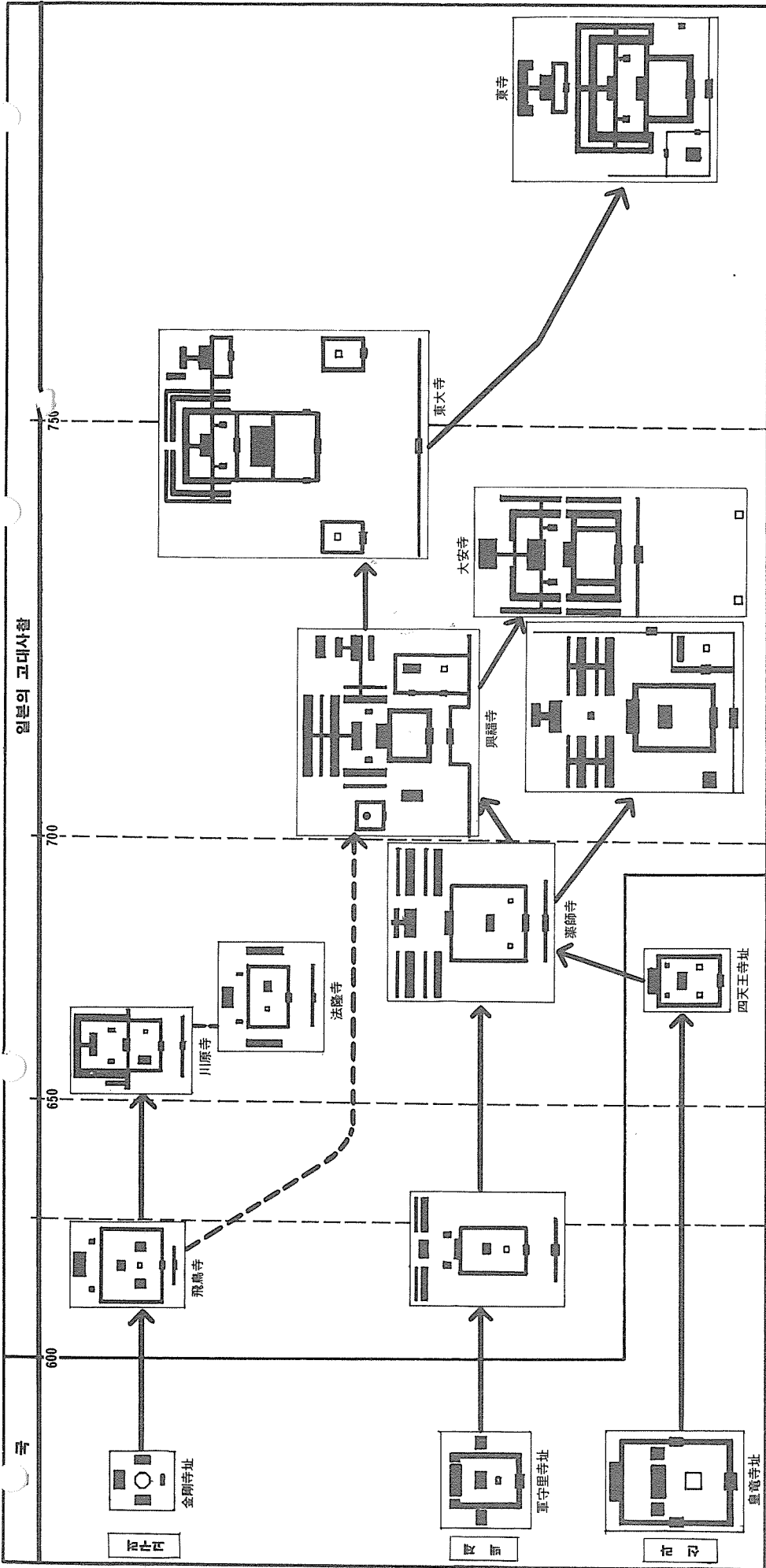
韓·中·日의 가람배치는 동일한 원형을 갖는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문화를 중국에 수용할 때 인도의 사찰형식까지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건축 특유의 비종교성으로 새로운 사찰 배치 형식을 창조한 바, 「洛陽伽藍記」에 전하는 永寧寺의 형식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소위 七堂伽藍制라 하는 것으로 인도 사찰 배치가 예불 등 기능을 우선으로 한 실질적인데 비해, 중국의 것은 古代天文思想과 유교적 질서에 의한 관념적 체계를 보여 준다. 중국계 건축의 제반 건축 유

형의 배치는 궁극적으로 궁전 배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찰 배치도 그 원형은 궁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국의 고대 사찰들 역시 이 원형에 충실한 것들로 고구려의 청암리 金剛寺址, 백제의 軍守里寺址, 신라의 皇庵寺址 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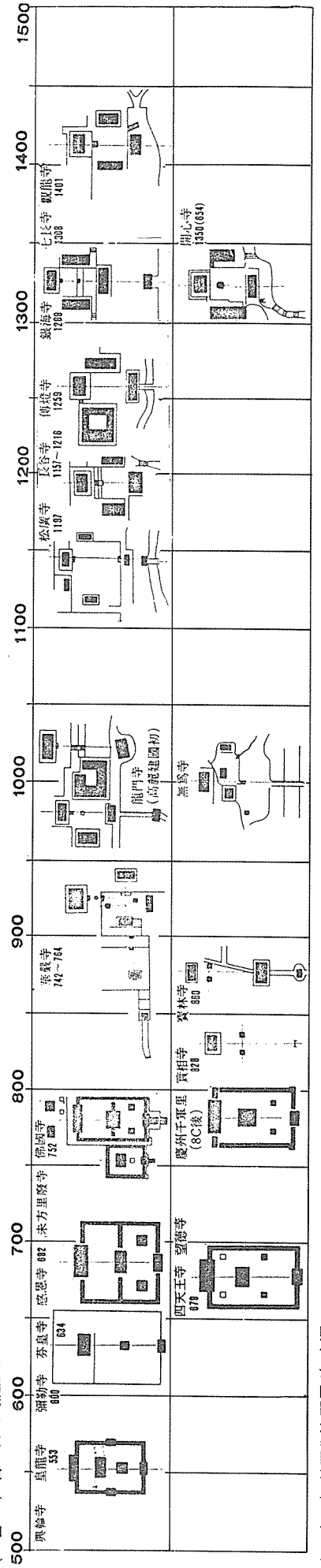
청암리 金剛寺址는 1塔3金堂형식으로서 「史記 天官書」의 五星座 배치와 흡사하다. 軍守里寺址는 전형적인 고대 가람배치로 中門·塔·金堂·講堂이 중심축상에 일렬로 놓이고 강당과 중문을 廻廊으로 이어 사찰의 一廓을 형성한다. 이를 변형한 것이 皇庵寺址로서 金堂 東西에 건물을 놓아 七堂伽藍制를 완성한 것이다. 세 원형적 가람배치에서 배경이 되는 사상은 다분히 관념적임을 알 수 있다. 가장 공통적 특징으로 탑을 중심 요소로 삼은 점, 강한 좌우 대칭의 구성, 회랑을 둘러 영역을 얻는 방법 등은 기능과 형태적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형적인 관념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의 불교는 인도 불교의 舍利信仰 영향으로 불상을 모시지 않아 金堂은 일반 출입이 금지되고, 탑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체 가람의 중심 요소는 탑이 되고 금당은 탑을 에워싸는 요소에 불과하다. 탑을 중심으로 금당·회랑·승방들이 겹겹이 에워싸므로써, 求心的인 同心円狀의 공간 구성을 한다.

공간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수직적인 불탑에 다달아 승천되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개념적인 구성이다. 이리므로써 사원 건축은 위압적이고도 최상의 상징성을 획득했던 것이다.



〈그림-1〉 韓·日의 伽藍形式 變遷系統圖



〈그림-2〉 韓國伽藍配置의 變遷

이들 세 가람배치는 모두 일본에 전수돼, 일본 가람배치의 원형이 된다. 金剛寺址는 역시 1塔3金堂의 飛鳥寺의 원형이 되고, 軍守里寺址는 1塔1金堂의 四天王寺의 원형이, 皇龍寺에서 발전한 신라의 四天王寺는 雙塔式의 藥師寺의 원형이 된다. 형식의 전과 관계를 계통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이 계통도 중 그 연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된 法隆寺의 西塔東堂式 배치도 개성의 演福寺, 남원의 萬福寺 등의 예가 있어 이 형식 역시 양국의 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 가람배치가 일본의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자체로서는 한 역사적 현상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나라가 동일한 원형을 갖었다는 점이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채 내적인 변천을 했다는 점이다. 이 계통도를 통해 가람배치의 형성과 변천은 건축 문화적 운동의 결과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전파와 수용이라는 대외적 운동 뿐 아니라 자체의 방향을 가진 변화라는 내재적 운동 역시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C. 한국 가람배치의 변천과 특성

이상의 원초적 구성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한국 사찰의 배치는 (표-2)와 같이 5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흔히 그 입지의 종류에 따라 초기의 평지형·중기의 구릉형·후기의 산지형으로 분류함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입지의 차이는 불교 교세의 성쇠에 의한 것이다. 즉 삼국시대에 도입된 불교는 삼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호국 왕실불교로서 도움 내 평지에 대규모로 건립되었고, 삼국통일 후엔 교세의 영향력이 차차 감소해 교외의 구릉에 세워지게 되며, 羅末麗初 이후엔 풍수지리의 성행으로 인해 사찰은 깊은 산중에 위치하게 되어 산지 가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물론 평지 사찰은 敎宗의 원리와 부합하며, 구릉형은 당시 불교의 密敎의 성격과, 산지 사찰은 禪宗의 교리를 적합히 표현할 수 있는 건축적 형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일본의 禪宗 사찰이 대도시 안에 세워졌던

(표-1) 한국 사찰건축의 시대구분(\*필자가설)

시대구분	왕조시기	대표적 사찰	입 지
발 생 기	삼국시대	• 금강사지 • 군수리사지 • 황룡사지	평지형
정 착 기	통일신라전기	• 불국사 • 화엄사 • 금산사	평지형, 구릉형
전 형 기	통일신라후기	• 수덕사 • 쌍계사 • 도갑사	구릉형, 산지형
발 전 기	고려시대	• 해인사 • 통도사 • 송광사	산지형
축 소 기	조선시대	• 전등사 • 은해사 • 관룡사	산지형

예를 보더라도, 교리상의 필요에서 입지를 택한 것은 아니고, 교단의 사회적 세력의 강약에 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 발생기: 불교가 최초로 도입된 이 시기의 가람은 B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형적 배치를 한 탑 중심의 가람이었다. 평지에 세워졌기에 영역을 한정시키는 유용한 방법으로 회랑이라는 건축요소가 사용됐다.

● 정착기: 탑의 중심성 약화라는 큰 발전을 보게 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감은사·사천왕사 같이 쌍탑형으로 발전하여 시각적으로 금당이 강조된다. 예배의 대상이었던 탑의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금당이 예배 기능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전체 가람의 공간적 중심이 된다. 이 현상은 회랑식 사찰의 내부적 발전으로서, 입지에 대한 해석은 고려되지 못했다.

감은사는 바닷가의 구릉에 세워졌지만 평지 사찰과 다른 없는 배치를 함으로써, 거대한 석축을 쌓고 좁은 대지를 건물로 채워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입지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배치계획을 했다.

입지 조건과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회랑을 없애는 것이다. 그대신 산맥과 자연적 조건 자체가 영역의 폐쇄성을 형성해 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 전에 없던 입지 선택의 노력이 수반된다. 아직은 새로운 입지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금산사와 같이 적합한 스케일을 구성하지 못하고, 화엄사·통도사·만복사와 같이 중심축이 2개 존재하는 직교형 배치를 한 사찰이 많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한국 사찰배치의 고유한 특성이 될 몇가지 방향성이 설정된 바, 즉 공간의 깊이를 얻기 위해 중심 건물에 이르기까지 단계의 영역을 설정한 사실과 주공간을 중정으로 이룬 점들이다.

● 전형기: 이후엔 극소수의 왕실

사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찰이 산중에 세워져 산지 사찰로서의 독특한 발전을 한다. 이 시기는 불교의 세력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로, 불교 건축은 가장 한국적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착기에 마련된 2가지 방향성을 따라 공간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 終心的 공간 구성이 완성되었고, 중심 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입부가 발달하여 각종 單門이 설치되었다. 주 공간을 이루는 중정에서의 방향성도 명확해져 유일하게 중심건물의 영향만 받는다. 이 시기는 한국 사람배치의 전형이 완성된 시기로 도입부-부공간-주공간-승화 공간의 단계를 갖는 공간 구성 형식과 입지의 다양성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의 유연성, 지형 Level의 처리 방식 등이 완성된 것이다.

● 발전기: 이 시기의 특성은 탑의 존재가 거의 무시되었다는 점과 전형기에 완성된 형식을 기준으로 좀더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송광사의 예를 들면 사찰의 규모확대에 따라 늘어난 殿閣들이 병렬적 방법으로 확정된 점이며, 그러면서도 지형에 맞도록 배치에 변형이 가해졌다.

● 축소기: 조선 왕조의 역불책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어 기존의 많은 사찰이 폐허화 했으며, 신축된 사찰일 경우에도 극히 필요한 기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이 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형식의 단순화를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사찰은 사찰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중심축상에 강당과 불전을 놓고 그 좌우에 승방인 요사채를 배치해, 불전 앞 중정을 폐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물만으로 한 Unit를 형성한다.

이상의 변천 과정을 통해 설정된 몇가지 방향성이 곧 한국사찰 배치의 대표적 특성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공간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특징으로 終心的 구성방식을 들 수 있다. 일주문·금강문·해탈문 등 몇 개의 單門을 지나 강당에 이르는 도입부와 강당 앞의 부공간을 거쳐 중심 불전과 그 앞의 주공간에 이르도록 점차 공간의 위계를 점증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승화공간을 설정해 더욱 공간의 깊이를 깊게 한다.

배치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유기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기능과 형식의 일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기능적인 회랑이 소멸되고 내부에 기능을 가진 건물로 영역을 폐쇄화하는 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자연과 인공의 유기적 일치성으로서, 중심부는 일정 형식에 맞추어 계획하지만 그 주변부는 지형적 특성을 따른다. 이런 특성은 궁궐 배치, 기타 건물의 배치에서도 잘 나타나는 한국적 특성이다. 셋째는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전체성을 추구한 점이다. 중심축에 따라 전체계획이 됐지만 동선은 계획축과는 달리 축을 우회하기도, 가로지르기도 한다. 또한 동선상의 각 절점에서 시각적 목표물을 갖도록 시각 계획을 했다. 일견 보기에 무원칙하고 무계획하게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가람 배치는 이러한 축·동선·시각 계획의 세심한 고려가 그 물처럼 엮어져 부분적 원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다 큰 전체적 구조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D. 일본 가람배치의 변천과 특성

일본의 가람배치史는 일반 일본사 구분에 맞추어 古代·中世·近世의 3 단계로 크게 나뉘나, 더 세분하여 飛鳥·奈良·平安·鎌倉·室町·桃山·江戸의 7 시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飛鳥時代: 588년 飛鳥寺의 창건을 시초로 중국과 한국의 불사 배치 형식과 건축 양식이 직수입 돼 아직 일본화되지 못한 시기로 飛鳥寺는 고구려 金剛寺址와 동일 형식이고, 四天王寺는 신라 皇龍寺와 동일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불탑을 가람의 중심 요소로 설정하고 그 주위에 3金堂

혹은 1金堂을 배치한 후 다시 회랑으로 감싸는 원형적 가람배치의 단계다.

●奈良時代: 일본 건축 문화의 제 1 전성기로서 일본 건축 특유의 和樣이 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건축을 주도한 것은 사찰 건축으로서 전국에 500개소의 사찰이 창건됐고, 가람배치 기본 형식이 정착됐다. 전 시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심축을 따라 특터진 시선 처리이다. 塔을 중앙에서 제거하여 금당을 사찰의 중심요소화하여 더욱 장대한 시각 효과를 거둔다. 法隆寺·川原寺와 같이 東堂西塔 혹은 東塔西堂의 배치를 하여 중심축의 軸性을 강조하거나 藥師寺와 같이 雙塔式으로 또 大安寺와 같이 無塔式으로 하여 金堂에 중심성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기본 형식을 모색했다. 또한 불교의 융성으로 인해 승방이 발달하여 大安寺와 같이 3面 僧房制를 확립했다. 이 시기에 사찰 건축의 기능과 배치 형식이 확립된 바, 사찰을 이루는 기능들은 仏塔·金堂·講堂·經庫·鍾樓·食堂·僧房 등 七堂伽藍의 요소와 仏門·僧門·廻廊 등의 연결요소들이다.

●平安時代: 이 시기엔 불교가 더욱 번창해 여러 종파로 나뉘며 그 건축적 특성도 다양해진다. 정통 종파의 건축은 東寺와 같이 전시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天台·眞言兩宗의 密敎系사찰들은 소위 山地伽藍 형식에 따라 건축됐다. 그 입지적 특성 때문에 이전의 평지 회랑식 배치는 다소 수정이 가해져 일부 堂·塔의 자유로운 배치를 허용하게 됐으며, 1塔1金堂制의 소규모 단위 Unit들이 여러개 병치된 소위 品字形배치(延曆寺)도 보이게 된다.

산지 가람의 출현과 함께 연못을 파고 정원을 만드는 臨池伽藍 형식도 나타나며, 주로 淨土宗系사찰이 이 형식을 많이 도입했다. 산지가람이나 임지가람 모두 자연경관을 중요시 하여 借景의 방법이 개발되었고, 원형적인 배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획을 시도했다.

이 시기부터 진전한 일본 사찰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는 바, 외부 공

간의 깊이 보다는 내부 공간의 위계와 깊이를 중요시한 점이다. 淨土宗系의 阿彌陀堂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불상이 안치된 內陣 사방을 外陣이 감싸며, 다시 그 주위에 退間이에 위싸 同心門적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鎌倉時代: 12~13C는 일본 건축 사상 일대 변환기였다. 大佛樣(天竺樣)과 禪宗樣(唐樣)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건축 형식이 도입돼 건축 문화 체계를 재편하지 않으면 안됐고, 불교계도 禪宗이 득세해 禪宗十刹이라는 큰 사찰들이 창건됐다.

특히 禪宗樣의 구조 양식이 도입될 때, 선종 가람의 배치 형식도 함께 도입돼 이전 古代의 배치 규범이 형식의 면에서 발전했다. 즉, 산지가람이 더욱 성행하면서 지형 Level을 적절히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했으며, 자연 전망에 대한 시각 계획이 더욱 발전됐다. 또 參道가 발달하여 일본 사찰에도 약간의 도입부가 형성됐다.

이러한 발전은 室町시대에 전수돼 중세 사찰 배치의 형식을 완성케 된다.

●室町時代: 応仁의 亂 등 많은 전쟁으로 큰 사찰들의 황폐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불교 문화가 약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많은 入宋僧들의 영향으로 明·淸의 건축 양식이 도입되었고, 이전의 배치 형식이 계속 발전돼 또 하나의 전형 형식을 완성했다. 建長寺(그림 4)에서 보듯, 중심축 선상에 總門·中門, 佛殿, 法堂, 方丈을 두고 중심부 좌우에 東司와 庫院을 두는 사찰 형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엔 특히 뒷 부분의 方丈이 발달하였는 바, 여기에 정원과 주택풍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이 사실은 중심부의 배치 형식은 이미 완성됐고 부속 시설이 발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桃山時代: 근세에 들어서면서 불교계는 더욱 분화돼 禪宗·淨土宗·眞宗·法華宗 등 수많은 종파의 사찰이 건축된다. 그러나 새로운 공간 해석은 보이지 않은 채, 萬福寺에서 보듯 이전에 완성된 배치 형식을 좀더 정형화시켰을 뿐이다. 외부공간의 구성은 정원 계획 등 시각적 측면만 고려될 뿐 공간 자체의 조직화 등은 진

전이 없고, 높고 넓은 내부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종교적 감동을 내부 공간에서 얻으려 노력했다.

또한 전체 계획 감각도 神社 건축과 유사해지는 등 좀 더 日本화된 특성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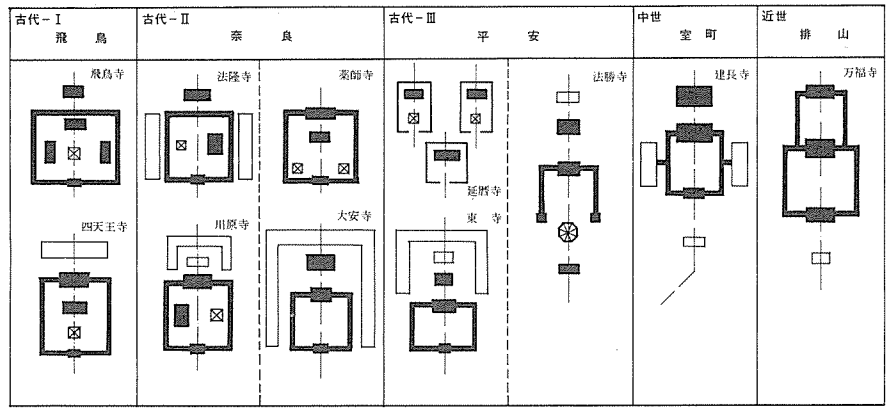
이상 일본 가람배치 변천의 개략적인 고찰에서 일본적 특수성이라 할 몇 건축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공간의 구성 개념은 求心的이어서, 도입부부터 중심 공간에 이르는 거리가 짧고 주공간이 먼저 체험되고 주공간 뒤에 부수 공간을 형성하는 연역적 구성을 한다. 궁전의 前朝後寢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공간 구성 보다는 건물 내부를 内·外陣으로 구획하는 등 내부 공간적 해결을 통해 불전의 공간적 위계를 높이고 있다. 계획의 특성으로는 강한 규범성을 들 수 있다. 즉 각 개체의 방들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는 廻廊과 軒廊이 발달하여 고대 사찰 규범이 근세까지 고수되었다.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천이 있기는 하지만 中門-食堂-講堂으로 이어지는 주요부의 계획 개념은 거의 불변으로서 주변의 승방부와의 연결이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뿐이다.

이런 현상을 통해 일본 사찰 배치 계획에서 가장 선행되는 계획 요소는 중심軸과 규범·형태이고 動線이나 視線 계획은 2차적 목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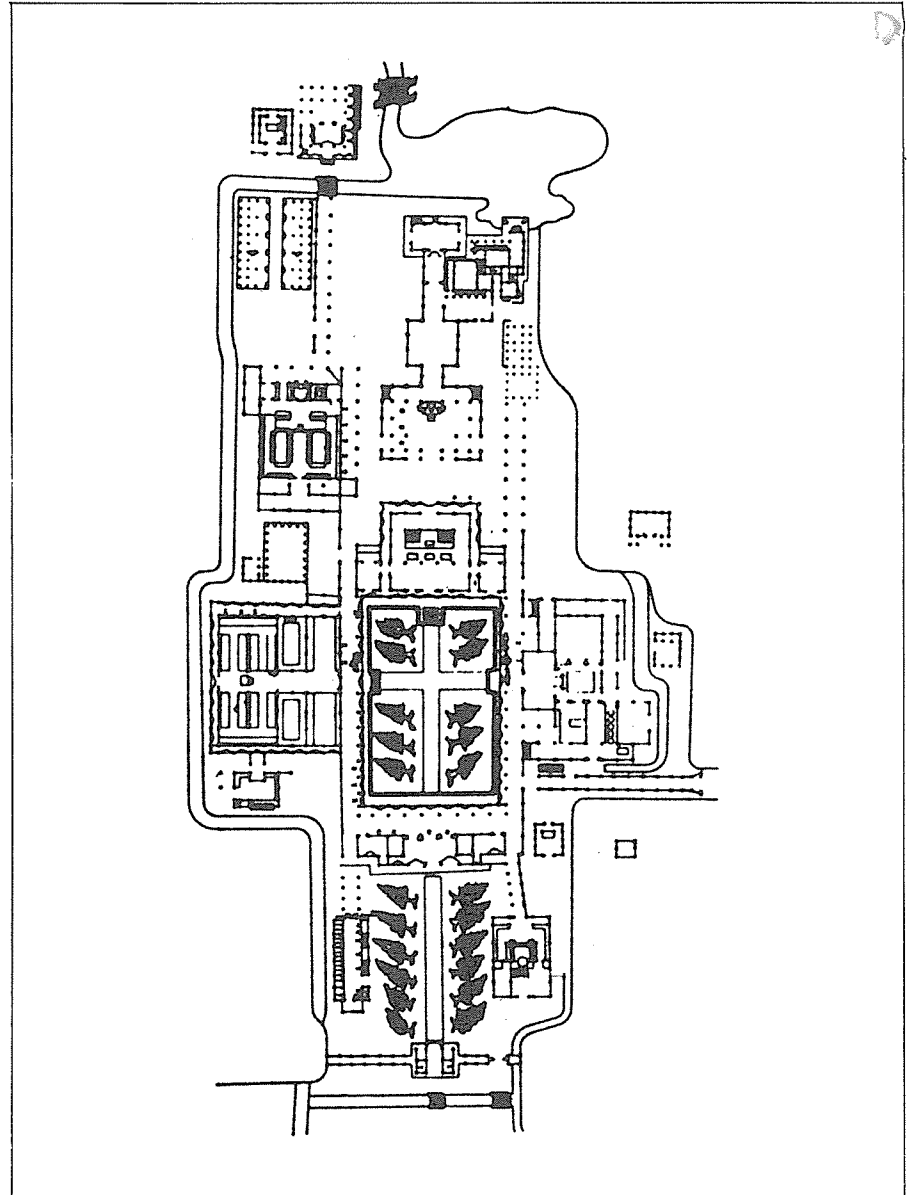
### E. 두 나라의 비교

두 나라가 동일한 배치 원형을 가졌으나 그 변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 왔음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변천 과정상 양국이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으나 비교의 목적상 차이점에 착안·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개략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평지회랑식 사찰에서 산지 중정식 사찰로 변천하며 변화의 원인은 文化圈 內的인 요인에 의한다 하겠고, 일본의 경우는 평지 회랑식 사찰의 기본적 형식이 근세까지 계속되며 文化圈 外部的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할 수 있다. 방향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차이점은 두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 배치 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의 기준과 공간의 구성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3) 日本 伽藍配置의 變遷



(그림-4) 建長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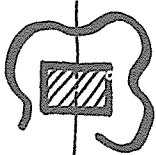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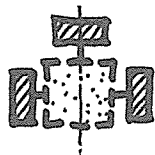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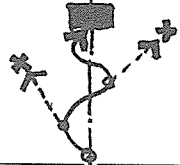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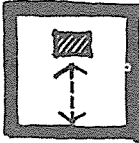


고 보인다.

#### E-1. 배치 계획의 기준

고대 가람배치에서 보이는 관념적이고도 규범적인 계획 개념이 한국에서는 기능과 지형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변모한 데 비해 일본은 그 관념

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규범화 했던 점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원형적 규범을 전자는 개념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하게 전개시켰던 데 반해, 후자는 그 규범을 내향적으로 더욱 심화하고 규범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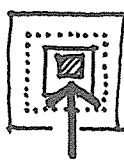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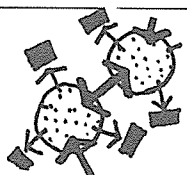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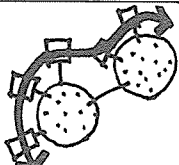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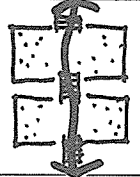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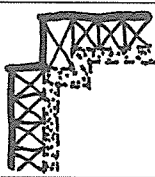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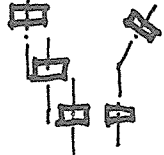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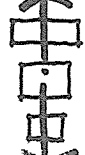
	韓 国	日 本
배치 형태	 규범적인 중심공간을 제외하고는 지형·기능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형태를 갖는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루지는 않으면서도 공간의 균형을 이룬다.	 중심공간뿐 아니라 僧房·食堂·浴室·倉庫마저도 규범적으로 계획했으며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다. 정확한 좌우대칭 형태를 가짐으로써 상징적·위압적 인상을 준다.
계획 요소의 관계	 軸線과 動線·視覺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면서 상호 보완·간섭의 관계를 갖는다.	 軸線을 따라 통행해야 하며, 공간 지각도 축선을 따라 일어난다. 상징성은 강조되고 인간적 친근감은 약화된다.
영역화의 방법	 건물들로 감싸진 중정을 가짐으로써 공간감이 풍부하다. 건물 사이의 여백을 통해 다음 장면에 대한 암시가 일어난다.	 회랑으로 감싸진 마당은 강한 폐쇄감을 가지며 의례적이고도 공식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부분과 전체	기능과 형태가 일치된 가운데 모든 부분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들은 고도로 계산된 결과이며 그 전체성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형식과 규범을 따르기 때문에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감지된다. 전체성의 추구보다는 특별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계획의도를 집중시키며 부분들 간의 연속성·통일감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 E-2. 공간 구성 방식

중요건축을 계획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준은 중심공간까지 참배자를 유도하는 방법과 거기서 체득할 수 있는 종교적 감동을 유발시키는 방법이

다. 이 두 목적을 위한 방법을 두 나라가 상이하게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찰은 중심을 깊숙히 감추어 두고 여러 공간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終心的 구성을 하며,

일본은 상징적 중심을 시각적으로 잘 인지되는 시각적 중심으로 변환시켜 몇겹의 부수공간으로 에워싼 求心的 구성을 한다.

	韓 国	日 本
공간의 위계	 중심이 되는 대상은 체험의 최종단계에서 출현한다. 이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개의 점중되는 공간을 거치면서 귀납적 구조에 대한 암시를 받는다.	 사찰의 짧은 도입부에 곧이어 중심부가 전개됨으로써 연역적 구조를 갖는다. 중심부를 지나면 별개의 공간들이 별개의 체험을 하도록 산재해 있다.
위계 구현 방법	 각 영역의 마당이라는 외부공간들의 크기·폐쇄도·질감들의 위계를 집중시키면서 최종 단계로 유도한다. 도입공간→과정공간→부공간→주공간→승화 공간으로 진행됨이 일반적이다.	 외부공간보다는 인공적 구조와 내부공간에서 여러 겹의 공간층을 형성함으로써 위계를 구현한다. 1間 4面堂의 柱廊→外陣→内陣으로 점중되는 공간층의 전개가 한 예이다.
부분의 연결	 각 부분은 중정과 그를 둘러싼 건물로 구성되며 중정과 중정을 연결함으로써 부분들이 전체화 한다.	 외부공간은 觀照의 성격이 강하며 각 부분은 내부공간들끼리 연결돼 있다. 각 室들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상당히 기능적이다.
연결 요소	 각 외부공간들은 계단·樓下進入·偶角進入·禪門의 인공적 요소를 통해 연결된다. 이 연결 요소들은 시각적 틀(Frame)을 이룸으로써 극적인 시각체험을 연출한다.	 내부공간들의 연결요소 자체도 내부공간인 廻廊이다. 회랑이 더욱 기능화한 편복도와 같은 軒廊을 통해 각 僧房이 연결된다.
공간의 축	 배치의 계획 축은 흔히 잘려져 병렬배치를 하던가 꺾여져 있는 바, 이는 운동과정의 다양한 체험과 시각변화를 계산한 계획의도로 보아야 한다.	 계획축을 더욱 강조하고 직선화시켜 상징성을 쉽게 얻을 수 있으나 풍부한 체험을 유도하기 어렵다.

<日本建築참고문헌> 福山敏男·清水擴：「日本の建築・2」, 第一法規, 1976. 日本建築学会 編：「日本建築史 図集」, 彰国社, 1980. 日本建築学会 編：「建築学便覧・I」, 丸善, 1980. 伊藤延男：「古建築のみかた」, 第一法規, 1977. 川上貞：「禪院の建築」, 河原書店, 1968.